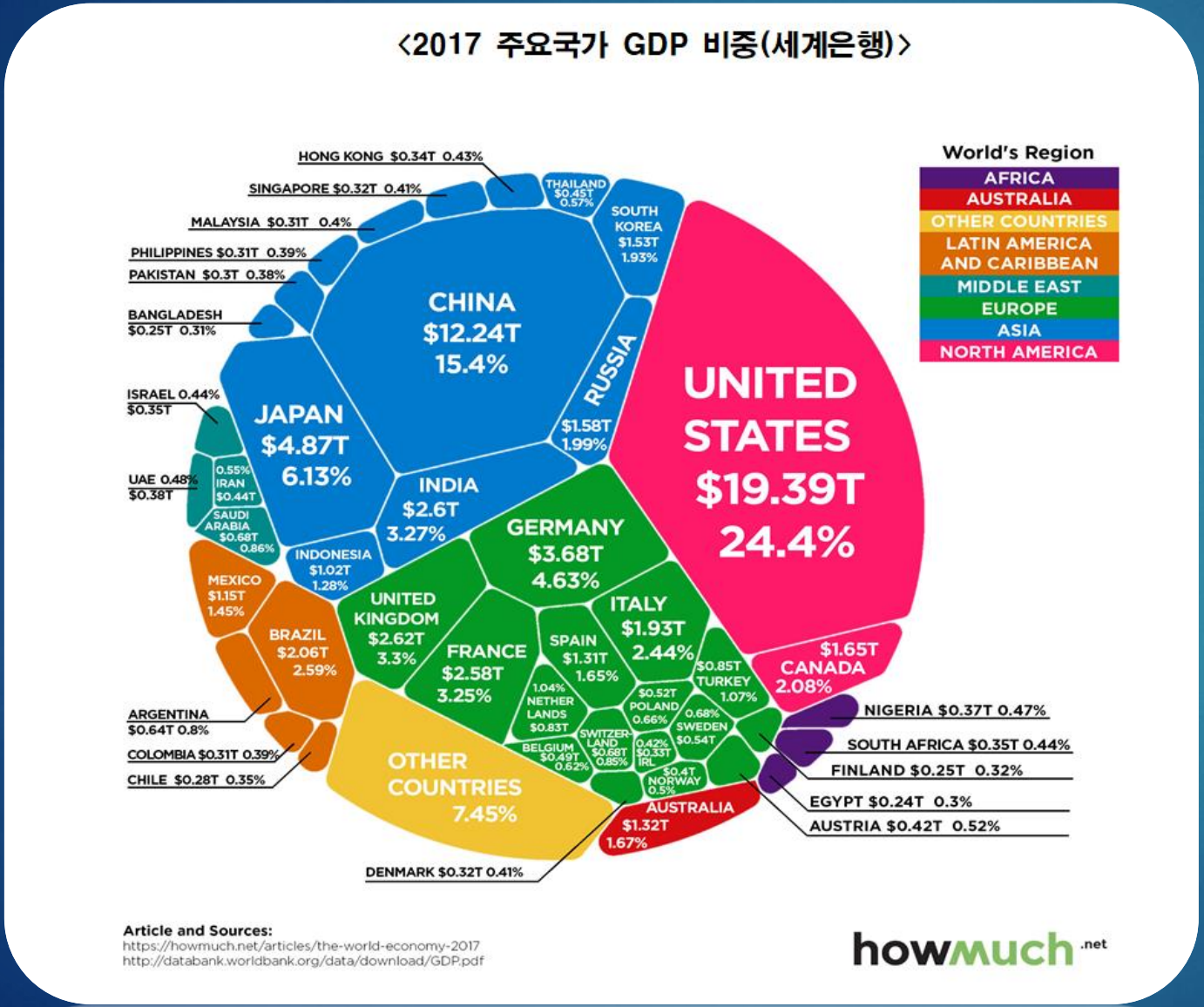
토론: “기로에 선 한미동맹과 한국의 대북정책”



1953년 8월 5일 덜레스 미 국무장관(왼편), 로버트슨 차관보(오른편)와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협의중인 우남 이승만 대통령

지정토론자 양일국(한국외대)

왜 한미동맹인가 1: 미국의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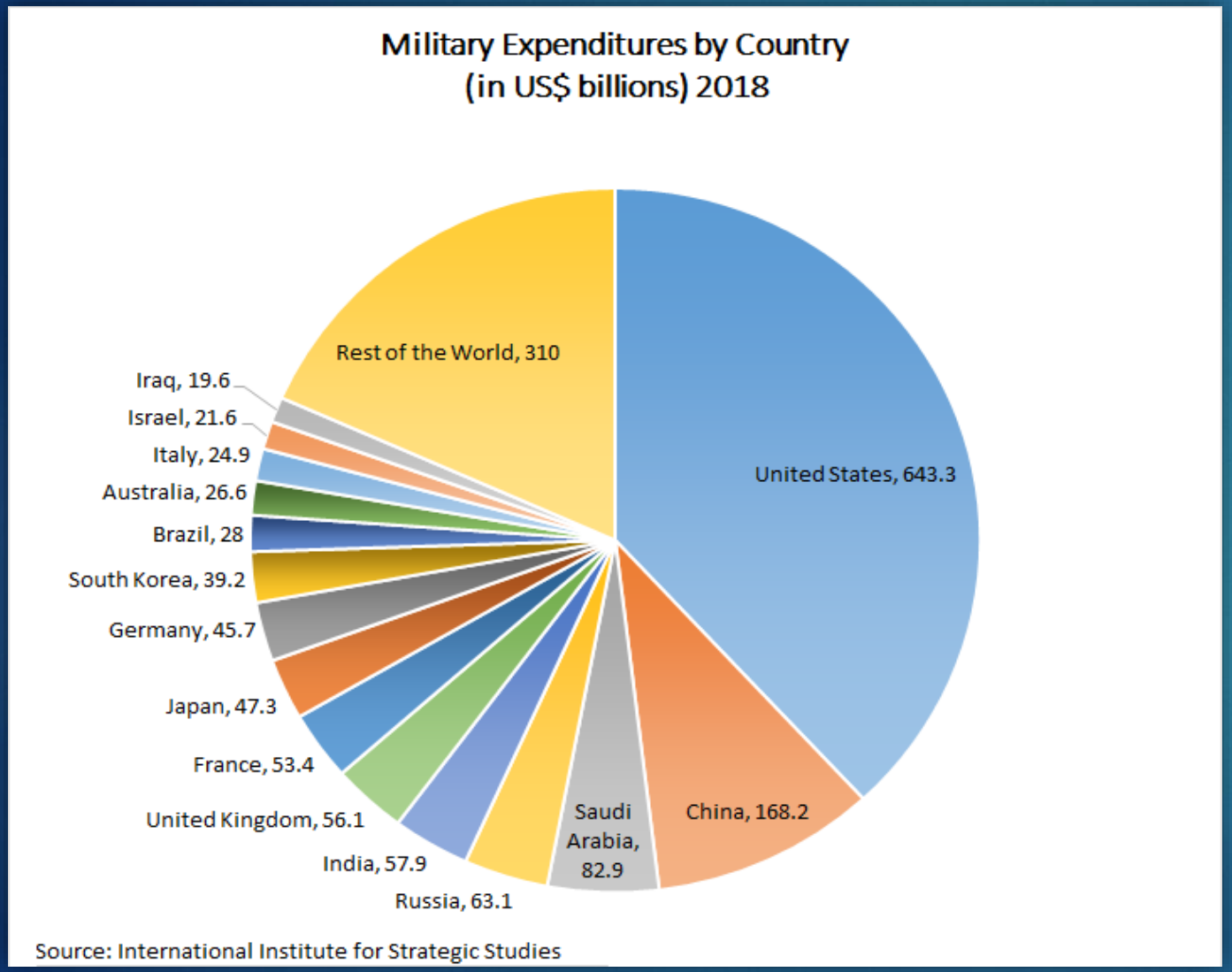


군사동맹 상대의 첫째 조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 2017년 GDP 세계은행 기준으로 미국이 전 세계 대비 24%, 중국이 15.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6.13%, 한국은 1.93%를 보이고 있다.

- 2017년 IMF 기준 1인당 GDP는 미국이 7위(59,792$), 일본 23위(38,448$), 한국 27위(29,938$), 중국 71위(8,643$)로 집계됐다.

왜 한미동맹인가 2: 미국의 국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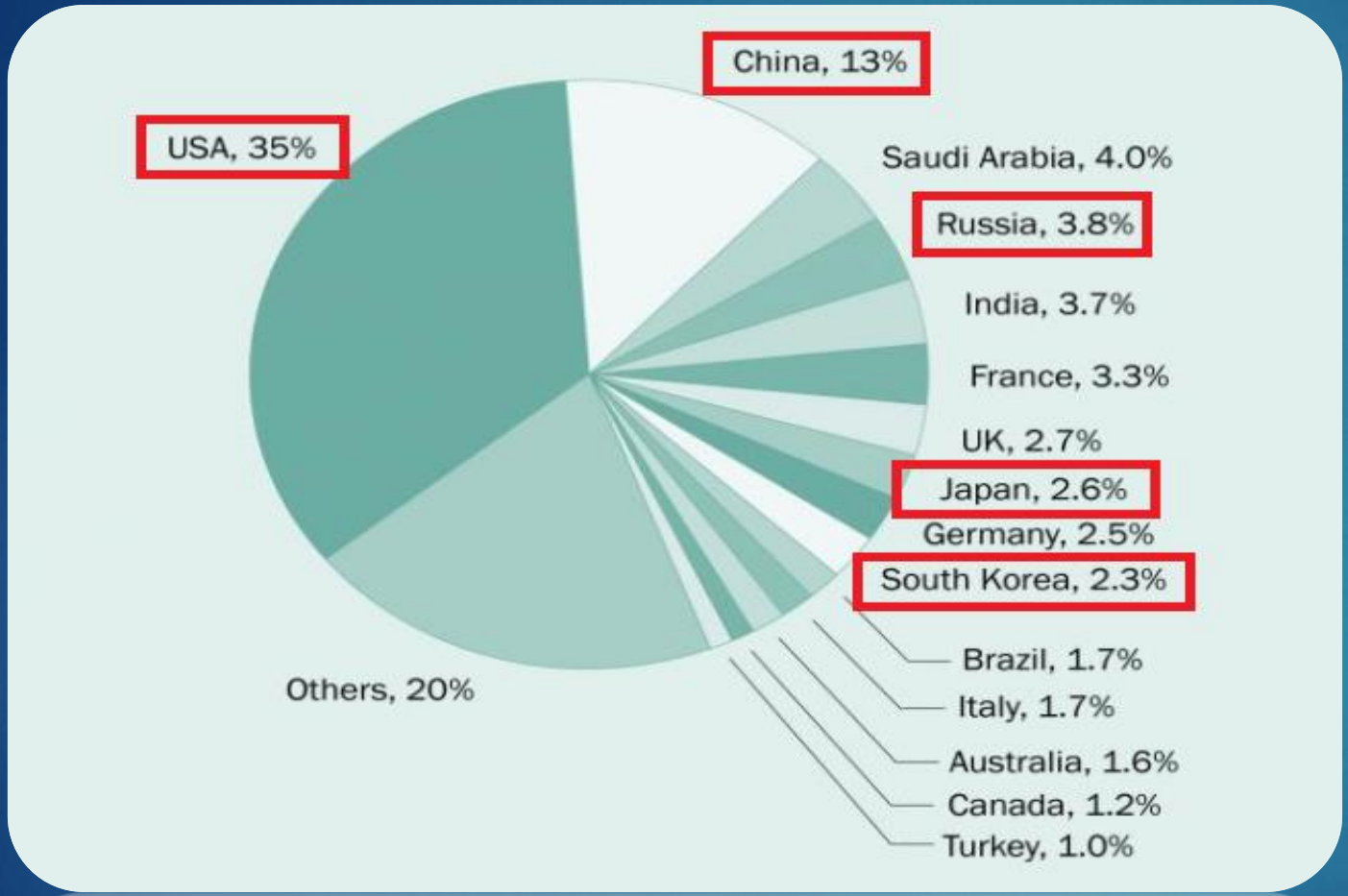


국방비 규모는 한 국가의 전쟁수행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국력 측정 요소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미국은 대체로 한화 기준 6-700조원을 지출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를 빗대어 천조국이라는 별칭을 지어줬다.

왜 한미동맹인가 2: 미국의 국방비



미국은 중국의 약 3배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미중의 합이 전 세계 국방비의 50%에 달하고 있다.

통상 국방비는 상위 20여개 국가들의 합이 전 세계 대비 80%를 차지한다.

출처: SIPRI 2018

왜 한미동맹인가 3: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

<2018년 세계 핵무기 현황 (SIPRI)>

Country	Deployed warheads	Other warheads	Total inventory
USA	1 750	4 700	6 450
Russia	1 600	5 250	6 850
UK	120	95	215
France	280	20	300
China	–	280	280
India	–	130–140	130–140
Pakistan	–	140–150	140–150
Israel	–	80	80
North Korea	–	(10–20)	(10–20)
Total	**3 750**	**10 715**	**14 465**

미국은 실전배치된 핵탄두 기준 1,750기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유수 외에도 유지, 관리 기술 및 실전에서 운용 역량까지 고려하면 여타 보유국과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왜 한미동맹인가 4: 미국의 국가경쟁력(IIMD, 2018)

국가명	'14	'15	'16	'17	'18
미국	1	1	3	4	1
홍콩	4	2	1	1	2
싱가포르	3	3	4	3	3
네덜란드	14	15	8	5	4
스위스	2	4	2	2	5
덴마크	9	8	6	7	6
아랍 에미리트	8	12	15	10	7
노르웨이	10	7	9	11	8
스웨덴	5	9	5	9	9
캐나다	7	5	10	12	10
룩셈부르크	11	6	11	8	11
아일랜드	15	16	7	6	12
중국	23	22	25	18	13
카타르	19	13	13	17	14
독일	6	10	12	13	15
핀란드	18	20	20	15	16
대만	13	11	14	14	17
오스트리아	22	26	24	25	18
호주	17	18	17	21	19
영국	16	19	18	19	20
이스라엘	24	21	21	22	21
말레이시아	12	14	19	24	22
뉴질랜드	20	17	16	16	23
아이슬란드	25	24	23	20	24
일본	21	27	26	26	25
벨기에	28	23	22	23	26
한국	26	25	29	29	27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IMD)이 매년 집계하는 국가경쟁력순위는 연성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의 4개 부문과 하위의 20개 항목, 340개의 지표로 집계된다. 미국은 16년 3위를 제외하고 부동의 1위를 고수해오고 있으며 중국은 10-20위권에 머물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25위와 2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40위권을 기록했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집계기관에 의하면 러시아의 GDP는 대한민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왜 한미동맹인가 5: 미국의 주요대학 순위(QS, 2018)

2019	2018	Institution Name	Location
1	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United States
2	2	Stanford University	United States
3	3	Harvard University	United States
4	4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United States
5	6	University of Oxford	United Kingdom
6	5	University of Cambridge	United Kingdom
7	10	ETH Zurich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Switzerland
8	8	Imperial College London	United Kingdom
9	9	University of Chicago	United States
10	7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ted Kingdom
11	15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Singapore
12	11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Singapore
13	13	Princeton University	United States
14	14	Cornell University	United States
15	16	Yale University	United States
16	18	Columbia University	United States
17	25	Tsinghua University	China
18	23=	University of Edinburgh	United Kingdom
19	19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ted States
20	21=	University of Michigan	United States

영국의 설문조사 기관 콰카렐리 시몬스(QS:Quacquarelli Symonds)가 매년 집계하는 세계대학순위 역시 국가별 연성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2019년 기준 상위 20개 학교 가운데 중국 소재 대학은 1개(칭화대), 미국 소재 대학이 11개로 집계되고 있다. 100위권에는 절반 가량이 미국 대학이었다.

왜 한미동맹인가 6: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HDI)	Life expectancy at birth	Expected years of schooling	Mean years of schooling	Gross national income (GNI) per capita	GNI per capita rank minus HDI rank	HDI rank
VERY HIGH HUMAN DEVELOPMENT							
1 Norway	0.953	82.3	17.9	12.6	68,012	5	1
2 Switzerland	0.944	83.5	16.2	13.4	57,625	8	2
3 Australia	0.939	83.1	22.9	12.9	43,560	18	3
4 Ireland	0.938	81.6	19.6	12.5	53,754	8	4
5 Germany	0.936	81.2	17.0	14.1	46,136	13	4
6 Iceland	0.935	82.9	19.3	12.4	45,810	13	6
7 Hong Kong, China (SAR)	0.933	84.1	16.3	12.0	58,420	2	8
7 Sweden	0.933	82.6	17.6	12.4	47,766	9	7
9 Singapore	0.932	83.2	16.2	11.5	82,503	−6	8
10 Netherlands	0.931	82.0	18.0	12.2	47,900	5	10
11 Denmark	0.929	80.9	19.1	12.6	47,918	3	10
12 Canada	0.926	82.5	16.4	13.3	43,433	10	12
13 United States	0.924	79.5	16.5	13.4	54,941	−2	12
14 United Kingdom	0.922	81.7	17.4	12.9	39,116	13	14
15 Finland	0.920	81.5	17.6	12.4	41,002	10	15
16 New Zealand	0.917	82.0	18.9	12.5	33,970	18	16
17 Belgium	0.916	81.3	19.8	11.8	42,156	6	16
17 Liechtenstein	0.916	80.4	14.7	12.5	97,336	−15	16
19 Japan	0.909	83.9	15.2	12.8	38,986	9	19
20 Austria	0.908	81.8	16.1	12.1	45,415	0	20
21 Luxembourg	0.904	82.0	14.0	12.1	65,016	−13	26
22 Israel	0.903	82.7	15.9	13.0	32,711	13	21
22 Korea (Republic of)	0.903	82.4	16.5	12.1	35,945	8	22
24 France	0.901	82.7	16.4	11.5	39,254	2	23
25 Slovenia	0.896	81.1	17.2	12.2	30,594	12	24

유엔이 집계하는 인간개발지수(HDI)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자유진영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력, 교육수준, 기대수명** 등을 근거로 산출되며 2018년 기준으로 미국(12위), 일본(19위), 한국(2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60위권**에 랭크되고 있다. 통상 10위권 이내에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 포진해 있어 측정의 신뢰도를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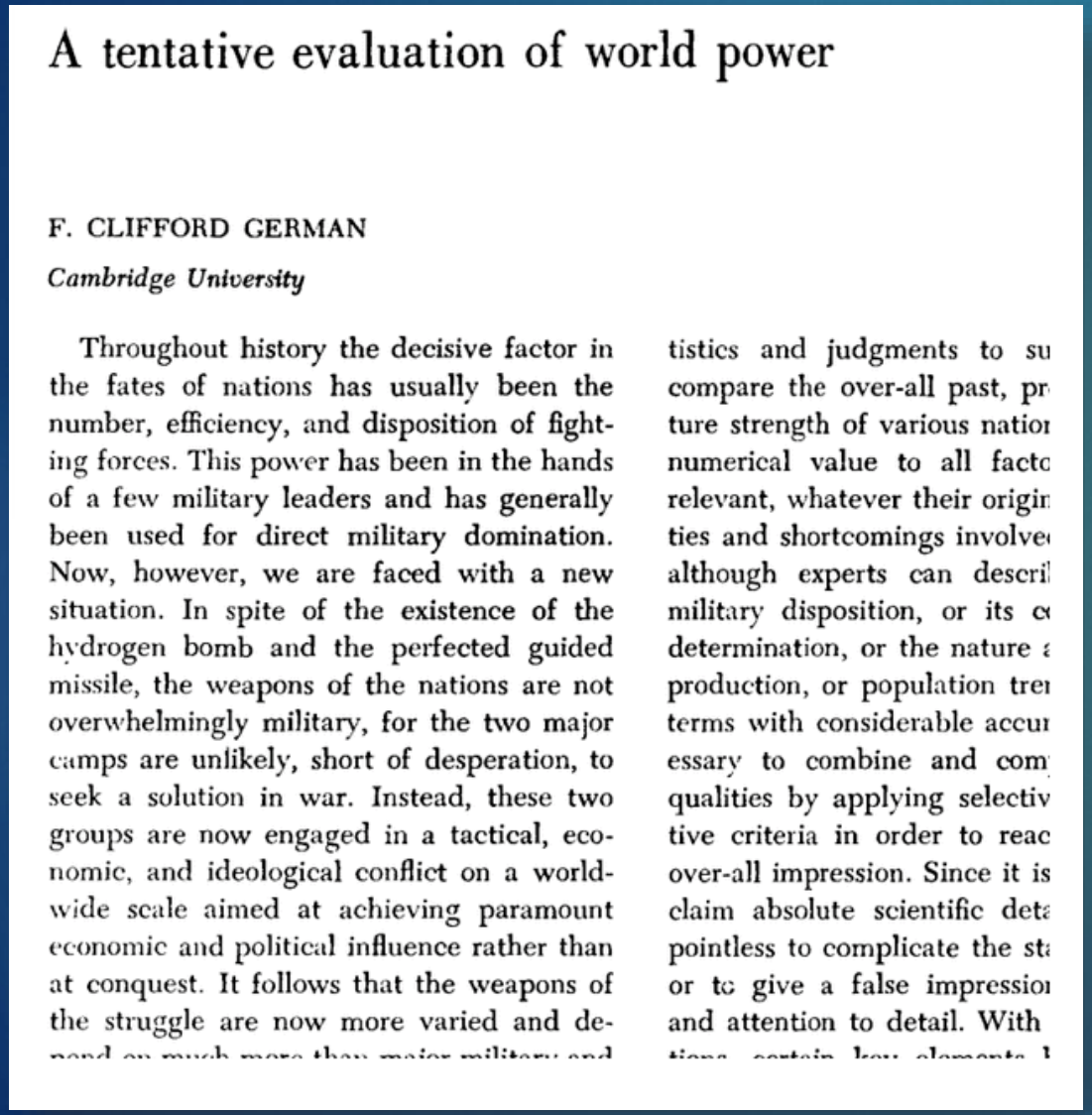
왜 한미동맹인가 7: 클라우스 노어의 국력측정 방법



노어는 1956년에 발표한 저서를 통해 경제력, 정부의 역량(administrative competence), 전쟁 동기(motivation for war)를 종합국력산출의 근거로 제시했다

Klaus Knorr, *The War Potential of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6), p. 41.

왜 한미동맹인가 8: 클리포드 저먼의 국력측정 방법



A tentative evaluation of world power

F. CLIFFORD GERMAN

Cambridge University

Throughout history the decisive factor in the fates of nations has usually been the number, efficiency, and disposition of fighting forces. This power has been in the hands of a few military leaders and has generally been used for direct military domination. Now, however, we are faced with a new situation.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the hydrogen bomb and the perfected guided missile, the weapons of the nations are not overwhelmingly military, for the two major camps are unlikely, short of desperation, to seek a solution in war. Instead, these two groups are now engaged in a tactical, economic, and ideological conflict on a world-wide scale aimed at achieving paramount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 rather than at conquest. It follows that the weapons of the struggle are now more varied and de-

tistics and judgments to su
compare the over-all past, pr
ture strength of various natio
numerical value to all facto
relevant, whatever their origi
ties and shortcomings involve
although experts can descri
military disposition, or its c
determination, or the nature
production, or population tre
terms with considerable accu
essary to combine and com
qualities by applying selectiv
tive criteria in order to reac
over-all impression. Since it is
claim absolute scientific deta
pointless to complicate the st
or to give a false impressio
and attention to detail. With

캠브리지 대학의 저먼 교수는 1960년에 국력산출의 지표와 더불어 각 요소들의 관계까지를 포함한 공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영토(L), 인구(P), 산업기반(I), 병력수(M, military size)를 합한 값에 핵보유 능력(N)을 곱한 값을 국력으로 보았다.

F. Clifford German, “A Tentative Evaluation of World Pow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 No. 1(1960), pp. 138-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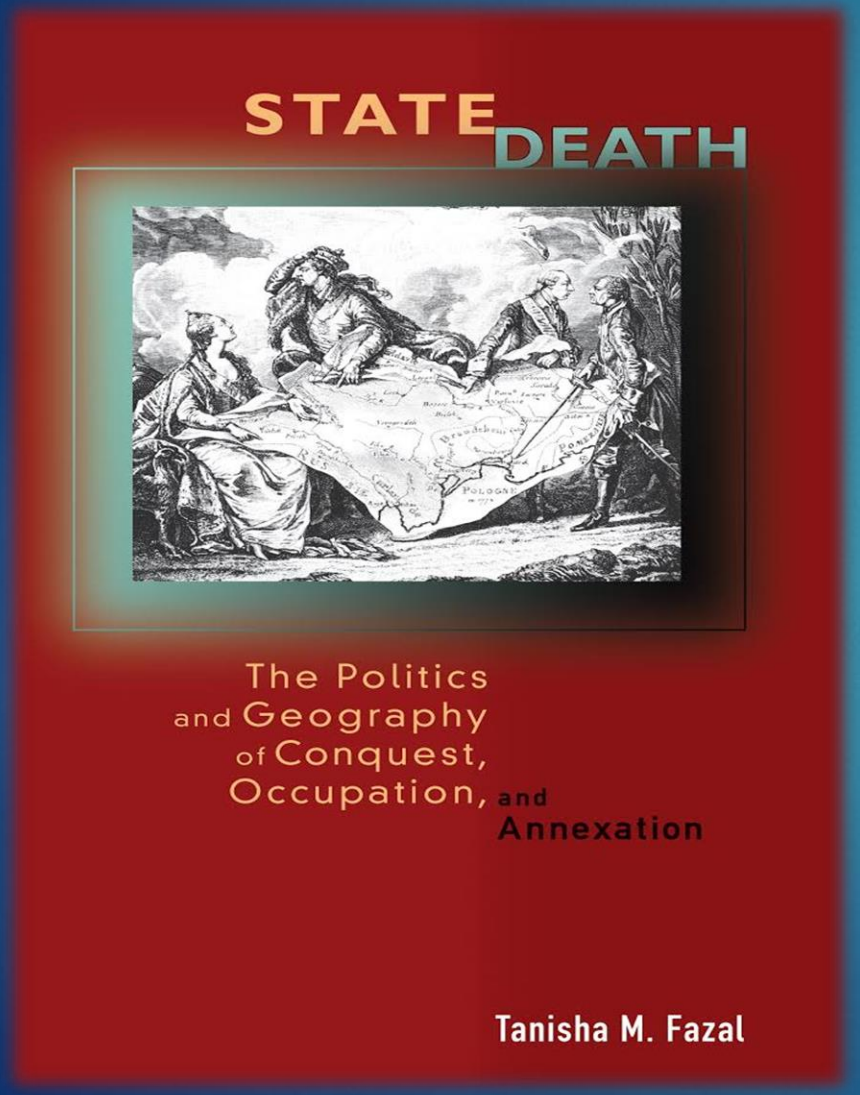
왜 한미동맹인가 9: 레이 클라인의 국력측정 방법



클라인은 국력을 유형국력과 무형국력으로 구분해 종합국력을 산출하려 했다. 즉, 인구와 영토(C), 경제력(E), 군사력(M)을 합한 값과, 무형의 국가전략(S) 및 국민의지(W)의 합을 곱한 값을 종합국력으로 보았다.

레이 S. 클라인, 『국력분석론』 (서울: 국방대학원, 1981), pp. 25-26.

왜 한미동맹인가 10: 원교근공(遠交近攻)



컬럼비아 대학의 파잘 교수는 2007년 국가의 죽음이라는 저서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6년부터 2000년까지 207개 국가가 존재했는데 이 중 66개국이 패망했으며 이 가운데 50개국은 접경한 이웃 국가의 공격으로 멸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경험적으로 경쟁하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buffer state)는 거의 살아남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이 좋은 동맹인 또 다른 이유는 멀리 있으며, 한국보다 훨씬 광활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왜 한미동맹인가 11: 자녀를 미국에 유학보낸 국내 인사



왼편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동영, 한명숙, 강정구, 정연주, 김낙중, 이석기

한미간 정보공유 체계 마비

연합뉴스

국정원 "영변 원자로 작년말부터 가동 중단…재처리 징후 없어"(종합)

이한승 2019.03.05. 18:29

MK 매일경제 MBN

유엔 대북제재委 보고서 "영변 핵시설 가동중"

신현철 기자 | 입력 : 2019.03.13 18:02:14 수정 : 2019.03.13 18:11:01

연합뉴스TV 2019-03-22 07:26:55

강경화 “”미국이 하노이서 요구한 건 핵폐기 아닌 동결”

MK 매일경제 MBN

윤곽 드러난 '빅딜문서'…사실상 CVID 요구한 '광범위한 비핵화'

입력 : 2019.03.30 11:07:29

핵신고-핵활동 중단-핵 인프라 제거-과학·기술자 전직 요구 4대 요구사항

北핵무기 美로 이전 등 직설적 요구…볼턴이 주창해온 '先 핵폐기' 리비아 해법에 근접

"이미 수차례 北이 거절한 내용…김정은에겐 모욕적이었을 것"

한국 사회의 국제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1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00년,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은 정상회담에 앞서 북으로 5억 달러를 송금한 것이 추후 밝혀졌다. 그중 많은 부분을 현대에서 제공했다. 훗날 김대중은 이 후덕한 선물에 대해, 잘사는 형이 가난한 동생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니엘 튜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2012)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 전혀 다른 질서로 작동한다는 기본적 상식이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생소한 듯 하다.

이러한 풍토에서 종종 정치인들은 국내윤리의 논리로 남북한 문제를 설명하는 오류를 범한다.

일례로 전직 장관출신 인사는 “동네에 말썽부리는 깡패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면 일단 달래야 한다” 는 논리로 대북 지원을 정당화한 바 있다.

한국 사회의 국제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2





사드 배치 이전은 평화, 이후는 안보 위협상태라는 논리 역시 모든 국가는 영속적 공포에 놓여있다는 국제정치적 상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확산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한국 사회의 국제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3

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자신감

2017년 8월 외교·통일부 정책토의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

2018년 3월6일 방북 특사 귀환 뒤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하라"

2018년 3월12일 북-미 회담 성과 뒤 "대한민국이 평화체제 주역 될 것"



두 국가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의 국력을 합한 값보다 강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 역시 국제정치의 상식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정치적 수사일 수는 있겠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2위 **중국**을 **한국**이 **중재**한다는 발상은 적어도 국제정치적으로는 허구에 가깝다.

한국 사회의 국제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4

文대통령 "한반도 두번 전쟁은 안돼…결국 대화로 북핵 해결"(종합)

송고시간 | 2017-07-06 01:31

獨대통령과 회담…"강한 제재·압박 당연…지금 대화 모멘텀 만들기 어려워"
"北도발로 긴장 높아지면 군사적 충돌 걱정…북핵 있는 한 평화 없어"
"냉전 허무는 게 우리 의무…중·러 경각심 가져야, 中이 결정적 키 쥐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韓·美·中·러·유럽 대북 한 목소리 내야"



국제정치학에서 전쟁 등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할 국익을 이른바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라 부른다. 북한에게 있어 사활적 이익인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발상 역시 적어도 일반적인 국제정치학 이론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 사회의 국제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5


北 핵 도발 경고와 동시에 "흡수통일 추진 않겠다" 약속

文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주요 내용 입력 : 2017-07-06 21:32 / 수정 : 2017-07-06 23:10

흡수하는 방식 외에 다른 통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역시 국제정치학의 상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100여년간 오스트리아(1955), 베트남(1975), 독일(1990), 예멘(1991)이 통일을 달성했으며 모두 흡수통일이었다.

참고: 남북한의 경제체제는 절충할 수 있을까?



"경제 질서는 시장에서 가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가 아니면 국가기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경제라는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제3의 원칙이란 있을 수도 없으며, 만일 있다면 그것은 대혼란만이 있을 뿐이다."

빌헬름 뢰프케(1899-1966)

마치며: 한미동맹 정상화는 국민교육에서부터



[알앤써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7.8%, 부정평가48.8%

2019.03.21 10:06:19

'남북경협-제재 해제 추진' 文정부 대북정책 '동의 51.9% >부동의43.8%'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재개 '도발할 것 53.7% >도발 하지 않을 것 41.5%'

지난 3월 21일 알앤써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51.9%로 조사됐다. 이는 반대로 대북 제재를 강행하는 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진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과 한미동맹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정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나 주한미군의 각종 사건사고 외에도 ① 일반적인 강대국에 대한 질시 ② 심정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우방으로 이해 ③ 교육 풍토에서 비롯된 조건반사적 반응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배경에 유의하면서 중도층 국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미동맹의 가치, 자유와 인권의 가치, 바람직한 통일의 청사진 등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